

혼자하는

기출분석의 방법

심 찬 우

기출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이, 수험생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출분석을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수험생들이 많다. 단순히 문제만 풀면 되는 것인지, 문제를 풀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만 찾으려 하는 것인지 사람마다 얘기들이 다르고, 하다보면 갈피를 못 잡는 게 사실이다.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봐서 지문의 내용과 정답, 오답까지 다 외울 지경이라 다시 기출문제를 봐야한다는 **'당위성'**에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9월 모의평가의 난도가 높게 출제되면서 그동안 기출문제로 돌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다. 그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질문을 해왔다.

'도대체 기출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기출 분석이란 무엇인가'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과 강사 분들이 강의를 통해 방법을 제시했지만 **실천을 못 했던 본인의 잘못이 사실 가장 크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자. 이것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지문의 내용을 1:1로 대응하면서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는 것만이 **기출분석이 아님**을 이 시간부로 인정하자. 그동안 자신이 잘 해왔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틀렸다면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기출분석의 방법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자.

1) 기출 분석의 방법은 최근에 본 시험부터 역으로 올라가도록 한다.

예시 : 대학수학능력시험(2017) → 9월 모의평가(2017) → 6월 모의평가(2017) →

* **2005학년도 수능까지가 적합하지만, 94학년도 1차 수능 이후 지문·문제들도 상관없다**

2) 반드시 문제가 아닌 **'지문'**에 초점을 둔 공부를 하도록 하자

▷ **지문 독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풀이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3) 기출문제집의 경우 **'해설지'**를 기준으로 구매하자

▷ 어떤 기출문제집이 좋은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하도록 한다.
하지만 해설지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되어있는 문제집이 좋다

4) 단순히 문제 풀고 맞추는 식의 기출 분석 방법은 오늘 이 시간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기출문제집을 열어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해 수능에서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얻어가도록 하자.

I. 독서(비문학)

■ **최초에 해야 할 행동은 당연히 문제를 푸는 것이다. '시간제한 없이'**

전제해야 할 것은 학교 또는 학원에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의 방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서, 문학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학습이 없는 수험생이라면 기출분석 이전에 어떻게 지문과 문제를 독해하고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학습을 선행한 뒤에 시작하도록 하자.

① 처음에는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시간제한 없이 풀어야 하는 이유는 **독해력의 문제를 '시간부족' 또는 '속독'의 문제로 치환하는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독해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간 단축'은 따라오게 되어있다.

* **그대는 지문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것이지, 글자를 빨리 못 읽는게 아니다**

②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 뒤에는 '절대' 정답을 매기지 않는다.

문제를 틀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지문 독해가 안 됐거나,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은 '지문 독해'와 '문제 풀이의 사고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지문 독해와 문제풀이 이후 **내가 파악한 문제의 출제의도와 풀이방식, 정·오답의 근거들을 체크**해봐야 한다.

③ 지문 독해와 문제풀이의 사고과정을 점검했다면 내가 지문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문제 풀 때 어떤 선택지가 명확하게 소거가 안됐는지를 점검하자.

지문의 경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체크해야 한다. 형광펜을 칠한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내 힘으로** 몇 시간, 며칠이 걸리더라도 혼자 힘으로 뚫어내야 한다.(추후 목을 매고 싶을 정도로 안 될 때 그때 질문이나 강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때 해결되는 순간 생각의 외연이 넓어지고 사고력이 신장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문제풀이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닌 '지문 독해' 즉 **'지문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있다. 내가 아직도 지문이 아닌 문제풀이의 방법이나 선택지의 정·오답의 근거를 묻고 있다면 **상위권이 아닌 것이다.**

사실 모든 문제는 지문 독해의 빈약함으로 귀결되지만, 그럼에도 해야 한다.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다시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이번에도 지문 독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문제에서 도출하는 정답이 최초 풀 때와 다르다면 **반드시 왜 달라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써보는 게 가장 좋다. 머리로만 하려고 덤비지 말라. '왜 달라졌는가'의 사고과정을 수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수능에서 올바른 사고과정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사고과정을 수정하는 과정은 본인이 잘 안다. 독해에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무작정 읽으면서 지나간건지, 문제를 잘 못 이해하고 풀었는지를.

⑤ 정답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이 행위를 반복한다.

절대 정답지나 해설지(강의)를 보면 안 된다. 정답지나 해설지를 보는 순간 내가 수정해야 될 사고 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답답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정답지와 해설지를 보는 순간 그 지문에서 발생한 **나의 문제점은 절대 수정하지 못 한다.**

이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은 **독해력이 부족하면 할수록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한 지문을 무려 30번에서 50번 가까이 보는 학생들이 있고, 심지어 한 지문을 3시간, 4시간 보는 학생들이 있다. 명심할 것은 1등급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습을 실상 어릴 때부터 해왔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이 연습을 하지 못하면 절대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대개 이런 내공이 없는 학생들은 6월과 9월에서 1 또는 2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능장에 가면 3, 4, 5등급으로 추락한다. 재수생들은 분명 이 경험을 했을 것이다. 국어는 해도 안 오른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양만 늘려서 했을 뿐, 제대로 된 분석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반박은 이렇다. '그럼 언제 다하느냐?' '영어, 수학 등등 할 게 많은데'. 이런 반박을 한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럼 원래 하던 데로 하라'는 것이다. 매 강의·상담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대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서 불평만 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 내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데 빨리 빨리 할 것 하고 치우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독해력과 문제풀이의 사고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 정답지를 보고 풀어본 문제의 정답을 체크한다. 해설지는 보지마라!

만약 확신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답지를 봤는데 문제가 틀렸다면, 다시 지문 독해를 하는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도록 한다. 대신 문제풀이보다 '지문 독해'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한다.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락, 한 단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문독해가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원이 그동안 보여 왔던 문제 출제 방식과 선지 구성 원리에 대해 강사가 말해주는 것을 단순히 받아 적기만 하고, '본인 스스로 기출문제들을 접하면서 **귀납적인 체득·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풀이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다.

■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독서'지문은 철저하게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글이다. 최초 교수님의 초고 작성 이후 끊임없는 수정을 거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년사**'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검토진들이 들어와 1차 검토를 마친 초안(지문과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을 두고서 문제 출제와 형태, 유형 등을 지문에 맞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맞게, 지금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검토하고 수정한다.

그렇다면 결국 묻고자 하는 것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되,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패턴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날 평가원에서 밝힌 것을 보면 이렇다

문항의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평가 목표에 충실하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출제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즉 **지문독해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는 것이다.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확실히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로 묻고자 하는 **문제의 형태는 익숙하다 못해 정형화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고, 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물론 지문독해를 잘 했다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방향은 잡혀 있을 것**이다.

다만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선택지를 가지고 출제자가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 두 지문을 풀었다고 해서, 이런 출제원리들이 지문을 풀면서 보이는게 아니다. 여러 지문들을 분석하다보면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이 단어를 바꾸거나 순서를 바꾸는 식의 장난질을 넘어, 한 번 생각을 해야만 하는, 즉 '추론'의 과정을 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장난질의 예시)

철근이나 철골과 같은 철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가 콘크리트보다 작은데다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가 콘크리트보다 높다. 특히 **인장 강도는 월등히 더 높다.**

→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근 콘크리트가 철재보다 크다.

[2017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기술+예술]

지문에서는 '인장 강도'라는 하나의 단어로 던졌지만, 이미 윗 문단에서 인장 강도가 무엇인지 정의해놓은 것을 연계시켜 물어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 등이 있다.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고,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 5문단의 내용

에서는 정해진 박자 내에서 질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리듬이 음표나 쉼표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어떤 조성의 음계

: 6문단의 내용

①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으로, 음악에서 질서를 가진 음표나 쉼표의 진행에 활용되는 요소이다.

: 29번 문제 ①번

[201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과학+예술]

작년 6월에서도 장난질 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 올 정도로 보인다.

본인이 문제 풀이를 해나가면서 평가원의 장난질에 익숙해진다면 지문 독해를 할 때, '아 이 짜식들 요거 문제 내겠고만'이라는 의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진짜 문제로 그렇게 낸다는 것이다. 내가 문장을 읽으면서 파악했던 핵심, 가령 '예시', '정의', '장점', '한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문제에 가면 박혀있다.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또 지문의 내용을 단순히 복사+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재진술' 및 '편집'을 시도한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강사가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하지 못하면 끝장) 정·오답의 근거를 찾으러 갈 때 지문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선택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 내공이 쌓인다면 지문의 내용이 어렵게 재진술 된다하더라도 튼튼한 독해력으로 다 뚫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문 독해와 더불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고과정, 평가원의 장난질 등을 분석했다면 끝난 것이다. **어차피 이 지문 수능에 안 나오니까 대충하자는 생각하지 말라.** 비슷한 진술, 출제 형태, 구조 등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본 강좌들을 통해 확인했겠지만, 나 역시 수능, 모의평가를 풀면서 "이거 예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네". "이거 예전에 봤던 그 문제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만 한다. 그게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것이다.

* 수학 1번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가? 아니면 아무 의심없이 바로 손이 가는가? **그것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끊임없는 분석과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

II. 문학

문학은 독서(비문학)와 분석 과정이 비슷하다. **다를 것이 없다.** 단 문학은 독서와 다르게 **개념적인 부분이 문제와 지문 속에 상당 부분 녹아있다.** 본인이 '화자'가 무엇인지, '서술자'가 무엇인지, 즉 기본적으로 문학에 대한 시, 소설이 구성되는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접근한다면** 절대 지문 독해와 문제를 풀 수 없다. 내신에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차려라.

위와 같이 비판하는 사람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개념과 더불어 기본적인 차이점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일 가능성이 높다. '전지적 작가시점'을 두고 아직도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이 어찌고 저찌고 떠드는 순간 **이미 개념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보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가 무엇인가? 솔직히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한자어이다. 이를 최소한 국어사전이라도 찾아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서 파생하여 '사건 전개, 인물 심리'등을 '모두 안다'라는 개념까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문독해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풀고 있기 때문이다.

*** 제발 부탁인데 국어사전 좀 찾자. 영어 사전만 엄청나게 찾고, 정작 국어시험에서 만나는 단어들은 찾지 않는 이 잘못된 태도부터 바꾸자!!!!**

문학 개념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에 '심부름' 영상을 통해 감상하기의 틀, 수사법, 시점 등에 대한 개념설명 영상을 올려놨다. 확인했으면 한다. **당신은 '직유법'이라는 중학생 개념조차도 흔들리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출문제에 출제된 모든 문학 선택지중 랜덤으로 밑줄을 쳤을 때,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학습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능 시험장에서 계속 발생하는 개념의 혼란과 불명확함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다. 작년 **9월 모의평가 24번 같은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것이다. 다 맞는 선택지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출제의도와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반드시 독서(비문학)와 같은 형태로 분석을 하되, 개념 학습을 병행하길 권한다.

감상하기의 틀을 가지고 지문을 분석하되, 지문의 내용이 선지로 어떻게 나오는가를 들여다본다. 단, 독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지문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깊이 있게 감상'했는지를 묻는다.

Ⅲ. 문법

개념과 문제풀이의 반복 외에 사실 없다. 왜냐면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보 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관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2017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문법 13번]

이 문제를 풀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할까? <보기>에 사용된 '용언', '어간' 등등의 어휘들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공부한(단권화한) 개념서를 펼쳐서 해당부분의 개념을 다시 확인 및 복습해야 한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법의 개념은 근대 개화기 이후 조선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오무라 신페이)에 의해서 정리되었기 때문에(주시경이 아니다) 일본식 용어, 한자, 심지어 최근엔 서양식 용어가 막 섞여 있다. 고유어로 된 것이 거의 없다.(최현배(연세대) 선생의 고유어 문법 정의는, 대학에서는 다루지만 학교문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귀와 머리에서 맴돌지 않는다.

무한 반복을 통해 문법 개념과 용어들에 대한 '친밀도'를 올려 익숙해짐과 동시에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문법 개념 학습을 하고 또 문제풀이를 반복하자.

'문법 기출문제집'은 정답을 절대 체크하지 않는다. 빈 문제집을 두고 정답은 빈 종이에 따로 기록해서 문제를 풀자. 문법 문제집의 경우 한 번 풀고 마는 문제집이 아니다. 수능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IV. 화법과 작문

독서 분석법과 100% 동일하다. 물론 정형화된 문제풀이 방식을 학습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법과 작문은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우선 속도를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한다. 정말 유일하게 '양치기'가 통하는 곳이다. 이미 새롭게 나올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 훈련하도록 하자.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패턴화를 시도하라

→ 나올 문제들은 정해져 있다. 패턴에 익숙해진 사람은 속도가 자연히 빨라진다.

* 최근 평가원 기출들을 끝냈다면, 교육청 문제들을 풀도록 하자